

내신기출 문항분석

[서울] 진선여자고등학교 국어 2015년 공통 1학년 1학기 기말족보

■ 문항별 분석 (객관식 25문항 / 서술형 5문항)

	문제타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난이도	기타
01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극의 형식과 특성	2	봉산탈춤
02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구조의 이해	2	봉산탈춤
03	서술형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봉산탈춤
04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극의 형식과 특성	2	봉산탈춤
05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극의 인물과 구성	2	봉산탈춤
06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봉산탈춤
07	객관식	독서	독서	내용 전개 방식	2	
08	객관식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09	서술형	독서	독서	어휘	3	
10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수필의 형식과 특성	2	얼굴(안병욱)
11	객관식	독서	독서	어휘	2	얼굴(안병욱)
12	객관식	독서	독서	어휘	2	
13	객관식	문법	음운	음운	2	
14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
15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
16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
17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비교 감상	2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
18	서술형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3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
19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흰철쭉(이청준)
20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흰철쭉(이청준)
21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구조의 이해	2	흰철쭉(이청준)
22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3	흰철쭉(이청준)
23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4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5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6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댈러웨이의창(박성원)
27	객관식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2	
28	객관식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2	
29	서술형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3	
30	서술형	문법	단어	단어의 의미	3	

내신기출 출제경향 분석

[서울] 진선여자고등학교 국어 2015년 공통 1학년 1학기 기말족보

■ 출제경향 분석

01. 시험범위 : 신사고

봉산탈춤 6문항 델러웨이의창(박성원) 4문항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자작나무숲으로가서(고은) 4문항
 흰철쭉(이청준) 4문항
 얼굴(안병욱) 2문항
 면면함에대하여(고재중),자작나무숲으로가서(고은),맹인부부가수(정호승) 1문항

기타교재

02. 난이도별 문항 분포 - 문항수

하(1점)	
중(2점)	████████████████████ 24문
상(3점)	████ 6문
최상(4점)	

03. 문항별 유형 분석 - 출제비율

음운	■ 1문
단어	██ 4문
독서	███ 5문
운문 문학	███ 5문
산문 문학	██████████ 15문

04. 총평

진선여자고등학교_국어_2015_고_1_1학기 기말고사는 총 30문항 서술형 5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에 충실한 기본 개념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문항에서 연관된 다른 텍스트를 활용한 것이 더러 보이지만 이것 역시 교과서 학습활동에 언급된 텍스트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도는 평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교과서 위주의 개념 학습에 충실하는 것이 내신 대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능형 문항을 꾸리기 위하여 선택지를 최대한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지가 아주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수능에서 자주 보이는 선택지들은 미리 학습하고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5 - 이 H 0001 - 1 - 0-12-1이

2015학년도 제 1학기 기말 고 사

2015년 7월 2일 제 1학년

국 어 I

객관식 25문항 | 서술형 5문항

- 서술형은 답안지 뒷면만을 이용, 문항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할 것.
- 서술형은 주어진 공간에서 벗어나면 오답(誤答)처리
- 글자는 적절한 크기에 정서(正書)로 또박또박 표기, 같겨쓰지 말 것.

※ 다음 글을 읽고 밑줄에 답하십시오. (1-5, 서술1)

(가)
말뚝이 (병거자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선님 [生員], 둘째는 서방님 [書房], 같은 도련님 [道尹] 이다. 선님과 서방님은 흰 장옷에 판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채자에 복건을 썼다. 선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선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나)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갈랑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아야, 이놈, 뭐야!
말뚝이 ㉡야,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곳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중략)

생 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예예.
생 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윈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걸을 활활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론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켠켠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선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중략)

(다)
생 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 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 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 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 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 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 방 네, 제가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 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詠詩調)로) "울복죽죽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 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라)
생 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예.
생 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갈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 빛 같고 울복죽죽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心)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랜이 비호(飛虎) 같은데, 선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 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 들었소

생 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 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마)
말뚝이 선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뭘 하요?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선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서 쓰지 않겠소. 그러니 선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다 잘 처리하고 잘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제 6 과장 끝 -

- '봉산탈춤'

이 작품 전체(봉산탈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 ①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재담 간의 연결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지닌다.
- ③ **③**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하나의 주제에 의해 통일된다.
- ④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극 문학의 한 갈래이다.
- 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 관객과 악공의 극중 참여가 가능하다.

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점]

- ① (가) : 등장 인물 소개와 인물의 희화화
- ② (나) : 말뚝이의 재담과 양반에 대한 희롱
- ③ **③** (다) : 풍류와 멋을 즐길 줄 아는 양반들의 모습
- ④ (라) : 서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
- ⑤ (마) : 당시의 황금만능주의 사회상 반영

서술형 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에 나타난 양반을 조롱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소재를 찾아 2어절로 쓰시오. [5.0점]

< 보기 >

사회 변화에 따라 의식이 성장하면서 서민들은 양반들에게 맨 얼굴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탈을 쓰고 자유롭게 하였다. 이러한 익명성의 보장을 통하여 그 동안 당했던 억울한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비판하며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 / 노새원님

3. ㉠에 해당하는 재담의 구조는? [3.0점]

- ① 양반의 호통
- ② 양반의 안심
- ③ 양반의 위엄
- ④ **④** 말뚝이의 변명
- ⑤ 말뚝이의 조롱

4. ㉡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

- ① 각각의 재담을 구분한다.
- ② 양반의 어리석음을 강조한다.
- ③ 극의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④**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려 준다.
- ⑤ 말뚝이와 양반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5.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점]

- ① 말뚝이는 서민의 전형이며, 재치 있고 기지가 넘친다.
- ② **②** 말뚝이는 양반을 모시는 하인으로 순종과 복종을 거듭한다.
- ③ 말뚝이는 당시 백성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양반 삼 형제는 당시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 ⑤ 양반 삼 형제는 무식, 무능하면서 허세만 부리는 부정적 인물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7, 서술2)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여러 형태의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남과 주고받거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생각도 주고받는다. 생각이나 기분은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과 글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예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요, 말은 인격을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즐겁고 밝게 만들어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후자의 말보다는 전자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적 언어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性), 지역, 민족, 인종, 장애 등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이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은 성별이나 출신 지역, 인종 등을 불필요하게 구분하거나, 장애나 신체의 특징, 국적 등을 나쁜 의도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여대생'이라는 말은 '남대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이다. '촌스럽다'는 지역 차별적인 표현이며, '살색'은 인종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귀머거리'와 '병어리'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고, '뚱보'와 '㉠'은 '살찐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놀리는 차별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일본인'을 낮잡아 이르는 '㉡'은 국적을 차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표현을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살색'을 '㉢'으로 바꾼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 '간호원', '파출부' 등도 본래 직업을 차별하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각각 '환경미화원', '간호사', '㉤'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부정적 언어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는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애, 왜 모르는 척하니?"를 "야 인마, 왜 생까!"라고 말한다든가, '젠장', '제기랄', '놈', '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개 좋다',

국어 I

2015학년도 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개재미있다'처럼 단어 앞에 '개'를 붙이는 경우 등이 있다. 감정이 격하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친구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고 싶을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지도 않게 심한 욕설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를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러한 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적 언어 표현을 구사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좋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욕설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침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물질이 정상 시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 교수의 실험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는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맹자의 말씀이다. 남의 처지가 되어 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게 되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기가 힘들다.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싹트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 태도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 사회에서 차별적 표현이 줄어들고, 욕설로 감정을 배출하는 일도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것이며, 개인도 기쁨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 ① 대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과학적 결과를 언급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X)
- ③ 비유, 예시의 방식을 사용하여 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X)
- ④ 구체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⑤ 자문자답(自問自答)의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X)

7.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점]

- ① ㉠ : 난쟁이
- ② ㉠ : 왜놈
- ③ ㉡ : 피부색 살구색
- ④ ㉡ : 청소부
- ⑤ ㉡ : 가사 도우미

서술형 2

㉢와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자성어를 쓰시오. (한글로 써도 됨.) [5.0점]

역지사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11)

사람은 저마다 얼굴을 갖고 있다. 작하고 품위 있는 얼굴의 소유자도 있고 흉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이도 있다.

우리에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하는 자유는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 얼굴이다. 얼굴은 재주나 재질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추하고 못생긴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플스토이의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판하고 염세적(厭世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젊었을 때에는 특히 자기 얼굴의 미추(美醜)에 대해서 유별한 관심을 갖는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 제 얼굴을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좋은 얼굴을 가져 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한두 달의 노력으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①적어도 10년쯤 성의껏 애쓴다면 얼굴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 가지의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 우리나라 오는 빛이다. 위대한 예술가나 탁월한 학자나 고매한 종교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있고 사람을 ②노르스름한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꽃에서 발하는 그윽한 향기와 같다.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랭킨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음미해 볼 만한 말이다. 일생을 무책임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무책임의 그림자가 서린다. 진실하게 살려고 한결같이 노력한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히 진실의 표정이 깃든다.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얼굴의 표정이 그렇게 굳어지고 만 것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있으면 벌써 얼굴에 그것이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이 질투의 감정에 휩쓸릴 때 얼굴 근육이 질투의 표정으로 이지러진다. 악의와 질투의 감정과 표정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가진다면 얼굴에 보기 흉한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매일같이 조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이 그만큼 진실해지는 것이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내 얼굴이 그만큼 흉한 얼굴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속한다.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은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을 강조하였다. 선생은 한국인의 표정이 저마다 빙그레 웃는 얼굴이 되기를 원하고 한국 사회가 훈훈하고 화목한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

도산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미소 운동을 일으키는 생각까지 하였다.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싶은 새 사회의 모습이요, 새 나라의 표정이다. 갓난아이의 방그레, 젊은이의 빙그레, 늙은이의 빙그레, 모두 다 인생의 아름다운 표정이다. 한국 사람의 모든 얼굴의 입 언저리마다 눈시울마다 부드러운 미소의 표정이 떠오르기를 그는 원했다. 도산은 그가 살던 송태 산장 입구의 문에다가 '빙그레' 또는 '빙그레'라고 써 ㉢붙이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얼굴에 화목한 미소를 짓기를 원하였다.

- 안병욱, '얼굴'

zocbo.com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 ① 대구와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유명인들의 일화(逸話)를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작가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9. ㉠의 상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속담은? [2.9점]

- ① 송곳도 글부터 들어간다.
- ② 낱물이 땃돌을 뚫는다.
- ③ 가루 가지고 떡 못 만들라.
- ④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
- ⑤ 칼날이 날카로워도 재 자루 못 깎는다.

zocbo.com

10. 밑줄 친 단어 중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3점]

- ① 그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 ② 그는 이번 기회에 친구 집에 눌러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 ③ 스위치를 누르자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곧바로 쬐어 나갔다.
- ④ 어찌다 국수를 누르는 집이 있게 되면 사랑 가득 사람들이 모였다.
- ⑤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을 힘으로 눌러서는 함께 일을 하기가 어렵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을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3.0점]

붙이고

<보기>

-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
- ㉢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과 'ㅎ'이 서로 만나서 'ㅋ, ㅌ, ㅊ, ㅌ'으로 줄어 발음되는 현상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받침이 올 경우,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ㅌ'이 되는 현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2-15, 서술3)

(가)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겨울

㉠은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재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치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펑펑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뜰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복소리는
왜 동동동동 울려 나겠니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나)

광혜원 이월 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적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어 온
울음이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6-19)

④십여 년 전 가을, 이곳 강남 청담동으로 신축 2층 슬래브 집을 사 옮겨 왔을 때부터 담장 가에는 수령이 꽤 오래되어 보이는 철쭉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수령이나, 2미터쯤 되는 블록 담장을 훌쩍 웃웃아오른 수고(樹高)로 미루어 근래에 옮겨 심은 화원수가 아니었다. 강남 개발 붐을 타고 강을 건너온 집 장수가 옛집을 허물고(집터 자랑으로 집 장수가 한 말이었다.) 새집을 지으면서 그 철쭉 한 그루를 그 자리에 그냥 살려 남겨 둔 것 같았다. 오랜 수령이나 나무의 크기 때문이었지만, 철쭉은 어딘지 그 험린 옛 집터의 사연이라도 간직하고 남아 있듯이 자태가 완강하고 확고해 보였다.

(중략)

⑦"아주머니는 아마 전부터 이 동네에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지요?"

나무거리를 대강 사 쟁겨 주고 나서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피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하고 보니 일은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이 동네 길만 익을라구요. 한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에 다른 집이 있었다오."

아주머니는 금세 눈치를 알아채고 한숨 끝에 천천히 사연을 털어 놓았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 안악 마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재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⑥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⑧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한데 어느 해부터인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동네가 마치 황제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떠나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몫을 ⑨땅값 비탈에 멋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요.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중략)

그런데 ⑩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 일 저 일로 거의 다 축내 버리고, 종내는 아들 내외와 성남 번두리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무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꿈에서도 그토록 꽃빛이 희고 탐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집터도 물론 내가 살아오던 옛날 집이었구……. 꿈을 깨고 나니 꽃이 필 철이더구만유. 그래 아무래도 무심할 수가 없어 나물 장살 핑계 삼아 꽃을 보러 왔었지유. 찾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담 너머로 꽃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구만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을 사 들어오고 나서 ⑪바로 다음 해부터의 일인 셈이었다. 첫째에는 아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가 아주머니가 아예 집 앞 길거리에서 전 자리를 펴고 앉은 그해에 와서야 분명한 기미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나물 바구니를 이고 와서 하루 종일 담 위의 꽃을 보다 가곤 한 것이었다. 꽃이 시들어 떨어질 때까지 내리 3년을 계속해 온 일이였다.

그해에도 아주머니는 마찬가지였다. 그해에도 그녀는 5월로 접어들며 몇 번씩이나 철쭉 꿈을 꾸었고 그만큼 혼자서 개화를 기다려 왔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집 앞을 찾아와 담 위로 흰 꽃이 흐드러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는 것이었다.

(중략)

하지만 그건 물론 실현성이 없는 소리였다. 아주머니네는 이제 나무를 옮겨 가 심을 길이 없었다. 그런 일을 치를 만한 힘도 없었다. 아니, 그보다 아주머니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일이었다. 아주머니는 차마 그녀의 본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흰 철쭉꽃은 그녀의 고향의 모습이자 친정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주머니는 철쭉으로 고향을 만나고 그 어머니를 대신 만나 온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중략)

아주머니가 봄마다 꽃 꿈을 꾸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 꽃으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거기서 친정의 무고를 믿고 싶은 애뜻한 기원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든 안 했든 그녀는 그 때문에 나무를 옮겨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⑫나무는 언제까지나 거기 남아 있어야 하였다. (중략)

한데 그러던 ⑬어느 봄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머니가 철쭉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지 정확히 9년째가 되던 저 1983년의 봄이었는데, 그해 봄에는 철쭉꽃이 피고 나서도 웬일인지 한동안 그녀가 나타나질 않았다. 예년 같으면 5월로 접어들어 꽃이 만개에 가까워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때를 맞춰 찾아오던 그녀가 이 해에는 꽃이 한창 제 고비를 넘기고 그 순백의 생기를 잃기 시작한 중순께가 되어도 영 나타나 줄을 몰랐다. (중략)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위한 우리들의 기원은 그 여름과 함께 더욱더 부풀어 올랐다. 이번에는 흰 철쭉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그 이듬해 봄까지 철쭉이 피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그 흰 철쭉보다 직접 소식을 알아볼 기회가 찾아왔다. 여름이 되자 한국 방송 공사의 '이산가족 찾기' 열풍이 시작된 것이다. (중략)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할머니도, 찾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채 그 뜨거운 여름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이 끝나고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 앞을 물러앉아 한여름의 흥분을 식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재풀에 맥이 풀리고 말았다. 애감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다. (중략)

할머니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할머니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한 채 흰 꽃들만 눈부시게 무리 짓고 있었다.

할머니의 그 기나긴 기다림이 세월에 바래져 그렇게 하얗게 피어나듯 누군가의 지친 넋을 위하여 ⑭아름다운 소복의 꽃상여를 꾸며 놓은 듯.

"저 꽃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올해도 저렇게 누구를 기다리며 곱게 필까요?"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도 할머니의 일을 부러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지내던 아내가 어느 날은 끝내 참지를 못하고 혼잣소리처럼 그

국어 I

2015학년도 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렇게 말했다. 할머니에 대해서는 나 역시 물론 아내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하면서도 나는 아직 아내처럼 막막하지는 않았다. 철쭉나무 가지 위에 날아와 앉아 있는 한 마리의 새 때문이었다. 언제부턴가 꽃나무 가지 위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오래 깃을 개고 앉아 있었다. 순백의 꽃빛 속에 적막스럽고 애뜻한 모습이 어떤 기나긴 기다림의 꿈속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낯이 새가 되어 돌아온 것인가..... 아내는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 이청준, '흰 철쭉'

16.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 ① 복선을 통해 사연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 ② 아주머니의 행적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③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실향민의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여 준다.
- ⑤ 좌풍 밖의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점]

- ① ㉠ : 질문을 통해 사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
- ② ㉡ : 아주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단절의 원인으로 아주머니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③ ㉢ :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주변인으로 전락한 하층민들의 삶의 원인이기도 하다.
- ④ ㉣ : 아주머니의 본심으로 옛집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 :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아주머니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18.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점]

- ① 시간상 가장 빠른 것은 a이다.
- ② b 시기에 아주머니가 이사를 가 고향과 소식이 끊긴다.
- ③ c가 a보다 과거이므로 역순행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
- ④ 시간상 c는 d와 같은 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d에서 나타난 아주머니의 갈등은 c의 시기에서 해결된다.

19. '흰 철쭉'을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주된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3.3점]

- ① 풍상(風霜)이 셋거 친 날에 꺾은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냈으니 도리(桃李)야, 꽃이은 양 마라, 님의 뜻을 알페라.
- ② 추강(秋江)에 밤이 스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싁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③ 금강(金剛) 일탄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玉)이로다. 월성루(歇醒樓)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書不盡) 화부득(畫不得)은 금강인가 하노라.
- ④ 꿈에나 님을 불러 잠 일올가 누엇드니 식벽 달 지식도록 자규성(子規聲)을 어이소리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너나 달오리.
- ⑤ 말 없슨 청산(靑山)이오 태(熊) 업슨 유수(流水)로다 감 업슨 청풍(靑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

앞부분의 줄거리 - 취미로 사진을 찍는 '나'는 그동안 쓰던 이 층 작업실을 세를 놓는다. 이곳에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고용 스틸 사진을 편집하는 직업을 가진 사내가 이사를 온다. 사내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자기의 직업이라고 소개를 한다. '나'는 사내의 집들이에 갔다가 그 사내로부터 델러웨이라는 사진작가와 그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델러웨이의 작품에 매료된 '나'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사진 작업에 절망감을 느끼고 진실된 사진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사진 관련 기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사진 아카데미를 찾는다.

나는 그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다 문득 벽에 걸려 있는 사진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앉아 있던 방의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크기의 사진이 한가득 붙어 있었다. 아마도 사진을 배웠던 원생들의 졸업 작품을 걸어 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델러웨이의 작품이라고 들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언젠가 사내에게서 들은 '야경'이라는 작품이었다. 사내가 설명한 것과 똑같았다. 확대경이나 돋보기가 없어 확인할 순 없었지만 네온사인파 가로등에는 사내가 설명한 것 같은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사진 아래에 있는 이름 때문이었다. 16기라는 기수와 함께 명조체로 인쇄되어 있는 이름은 계약서를 쓸 때 보았던 사내의 이름이었고, 또한 근 일 년 가까이 내가 사내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었다.

"아이구,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 미스 김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a) 암실 용품을 기증하시겠다고요."
원장이 다시 커피를 주문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대신 원장에게 혹시 델러웨이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원장은 겸연쩍은 듯이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고, 미스 김이라는 여직원

이 커피를 갖다 주자 말을 꺼냈다.

“벌써 몇 주째 델러웨이의 사진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델러웨이에 대해 토론을 하고 나오는 길이죠. 허 참……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한 수강생으로부터 처음 듣고 알게 되었어요. A. F. I까지 유학을 다녀왔어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았지요.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지요.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 붙일 만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겠다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여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설만 난무하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뭔지…… 원…….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델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 광고 보셨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닛에서 꺼내 주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흉내 내 찍은 사람이 있다고 물어보았다.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만든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 해서 뭐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도…….”

그날 나는 이 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지켜 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사내의 이름이 또박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쪽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뿔뿔이 분명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이 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처럼 만들어 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창으로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사내가 창으로 비칠 때 외에는 사내의 모습이 암갈색의 벽에 가려 있어 사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창으로 비친 그림자가 사내라고 단정할 그 무엇도 내겐 없었다. 어쩌면 지금 비친 그림자는 사내가 아니라 사내의 여자 친구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사내의 여자 친구는 창으로 볼 수 없는 암갈색의 벽들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사내의 여인이 방 안에 아예 없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창으로 비친 그림자는 사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도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내의 남자 친구일 수도 있다. 아니 아니, 어쩌면 창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만든 그림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창문 안에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른다.

㉤창을 통해서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실체를 엿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이다. 바로 빛이 만들어 낸 그림자.

진실이 창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체는 아직도 사각의 벽 안에 웅크리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창은 진실을 보여 주지 않는다. 실체는 사각의 벽 속에 온전히 있을 뿐이고, 창은 다만 진실을 향한 허망한 갈망일 뿐이다.

- 박성원, '델러웨이의 창'

zocbo.com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9점】

- ㉠ 복선을 활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한다.
- ㉡ 일상적인 소재들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 거짓이 진실이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 ㉤ 극적 반전을 통해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전개된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 ㉠ ㉠ :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의 인물임이 드러난다.
- ㉡ ㉡ : 원장은 사람들이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고 믿고 있다.
- ㉢ ㉢ : 사내는 컴퓨터로 사진을 조작하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 ㉣ : '이 층의 창'은 거짓을 진실로 만든다는 점에서 '컴퓨터'와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 ㉤ ㉤ : 서술자의 생각으로 창을 통해 진실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국어 I

2015학년도 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22. ㉠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3점]

- ① '나'와 원장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다.
- ② 원장과 사내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다.
- ③ '나'와 델리웨이와의 의적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 ④ '나'가 델리웨이의 작품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일으켜 일어난 일이다.
- ⑤ '나'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미로 사진을 찍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23. 소재의 성격이 나머지와 가장 이질적인 것은? [2.7점]

- ① 사진집
- ② 델리웨이 사진
- ③ 컴퓨터
- ④ 샴
- ⑤ 그림자

24. <보기>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점]

고유어 표현	한자어 표현
ㄱ. 말은 우리의 사고를 반영한다.	ㄱ. 언어(言語)는 우리의 사고를 반영한다.
ㄴ. 길동이가 말할 차례이다.	ㄴ. 길동이가 발언(發言)할 차례이다.
ㄷ. 우리 서로 말로 합시다.	ㄷ. 우리 서로 대화(對話)로 합시다.
ㄹ. 쓰지 말고 말로 답하십시오.	ㄹ. 쓰지 말고 구술(口述)로 답하십시오.
ㅁ. 홍길동에 대해서 말이 많다.	ㅁ. 홍길동에 대해서 소문(所聞)이 많다.

- ① 고유어는 순우리말이고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한 말이다.
- ② 고유어는 다의어로서의 의미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③ 한자어는 의미가 전문적이고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한자어는 의미 영역이 넓어 고유어의 의미를 포괄함을 알 수 있다.
- ⑤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꿀 때에는 특정 한자어로 바뀌어 함을 알 수 있다.

25. <보기>의 밑줄 친 표현과 동일한 방식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3.2점]

<보기>
계 친구 영준이는 발이 참 넓습니다. 어쩌나 발이 넓은지 선생님부터 선후배까지 영준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순간에 영준이에게 물어보면 영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 ㉠ 그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육계에 발을 디뎠다.
- ㉡ 결국 모두 함께 사용하던 의자의 다리가 부러졌다.
- ㉢ 고민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 ㉣ 이제 일이 손에 익어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 ㉤ 늦은 밤이 되어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동동 발을 굴렀다.

서술형 4

<보기>의 ㉠, ㉡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각각 2점) [4.0점]

<보기>
'변소'는 듣는 이에게 더러운 대상을 연상하게 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사용을 꺼리는 말이다. 이런 말을 (㉠)라고 하는데, 주로 죽음, 질병, 범죄, 성(性), 배설 등과 같이 불쾌하거나 두려운 대상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말 대신에 사용하는 말을 (㉡)라고 한다. '변소'가 (㉠)라면, '화장실'이 (㉡)인 셈이다.

음기어 / 안락어

서술형 5

국어의 어휘를 어중에 따라 분류하여 () 안에 쓰고, 각각의 예를 <보기>의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각각 2점, 총 6점) [6.0점]

<보기>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담배를 사려고 했지만, 주말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부득이하게 버스를 타고 멀리 시내까지 나가야 했다. 서늘한 바람에 결을 느려진 탓인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였다.

- ① (외래어) : 슈퍼마켓, 버스를 타고 멀리 시내까지
- ② (고유어) : 담배, 부득이, 주말, 결을, 집, 이미
- ③ (한자어) : 시내, 집

질문에 적합한 답을 기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9